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22일)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코로나 잊은 연꽃 삼매경 변이코로나 확산이 거셌던 7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활짝 핀 연꽃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코로나와 긴 장마비 사이에서도 피어난 연꽃처럼, 오탁악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청소년 출가자, '군승' 의무복무 중앙종회 부의…통과될 수 있나

출가특위, 7월 14일 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성안

사상 초유의 군승 파송 미달사태 해결을 위한 조계종 차원의 대안 마련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를 지닌 청소년 출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 사병 대신 군종장교로 단기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병역 이행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성을 비롯해 논란 요소도 있어 향후 중앙종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특위(위원장 정범)는 7월 14일 종회 소회의실에서 출가수행자장려정책마련을 위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225회 임시종회에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하 출가특별법개정안)을 성안, 19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부의키로 결의했다.

출가특위가 이번에 성안한 '출가특별법개정안'은 군승 파송 자원 부족사태에 대해 소년출가자 및 군미필인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하면 군승으로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이들이 종립대학 재학 중 종단에서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년출가자는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출가자를 말하며, 청년출가자는 19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의 출가자를 말한다. 이날 출가특위 회의에서 교육원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편차는 있지만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군승 수급을 청소년 출가자 의무복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성안에 앞서 특위에서 일부 스님들이 의무복무에 대해 출가자에게도 병역 이행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종립대학 기피나 출가자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군미필 스님에게 종단 지원
군종장교 복무로 병역 이행
年 2~10명 가량 수급 기대
강제성 많아 통과 여부 주목

하지만, 출가자로서 장병 복무 대비 장교 복무의 장점이 많다는 군종장교 출신 스님들의 의견과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점에서 대다수 특위 의원 스님들이 성안에 동의했다.

특히 의무복무 외에는 종단 차원의 뾰족한 단기 군승 수급대안이 없다는 점도 이번 법안 성안을 이끌었다.

현재 군승 파송 문제는 장기적으로 출가자 감소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가톨릭이 시행하는 교구의무할당제는 중앙집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계종 입장에서 본사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과 군법사 제도 운영은 2009년 종헌 독신 예외조항 삭제 및 군승 정체성 강화 이후 장점 증대와 제도 정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스님 신분이라면 병사보다, 이들을 이끄는 위치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출가자로서는 전법과 수행이 사명이기에 군에서 전법을 하자는 의미"라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 위한 작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은 "현재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청년층 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 포교에 난관이 많다. 하지만 군장병은 매주 정기적 종교활동이 보장되어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종단의 군승 파견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획] 5면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선학원 문제 해법을"…비구니 스님 첫 결집

전국비구니회 7월 11일 긴급회의 개최

철우 스님 · 정인진 변호사 발제
총림선원 · 청화사 창건주 스님들
직접 참석해 각 피해상황 공유도
조계종 · 선학원에 호소문 전달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고착화된 조계종과 선학원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선학원 소속 비구니들을 위해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해법모색에 나섰다. 특히 스님들은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모아조계종 · 선학원 양자 모두에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는 등 본격행보에 착수해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11일 '선학원 소속 비구니사찰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회의 소집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총림선원과 청화사 문제와 관련, 당사자인 창건주 스님들이 직접 참석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발언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총림선원은 선학원이 창건주 · 분원장 모르게 사찰 토지를 진주시에 매각한 사례이고, 청화사는 감사 2회 불응으로 사고사찰 지정 및 재산관리인 파견통보를 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은 "선학원이 총림사 무허가 전각 4동이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몰래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 6개월 동안 팔순의 은사 스님도, 저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탁명 스님은 현재 진주시를 상대로 총림선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진행 중이며, 선학원 측은 유치원 건과 관련해 스님과 은사 스님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상태다.

탁명 스님은 "선학원 분원 창건주로서 나름대로 재단에 잘 협조하면서 살아왔기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힘든 싸움을 시작했지만, 부처님과 호법신장님, 여기 모이신 스님들께서 우리 총림선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청화사 창건주 심원 스님은 "총림선원과 비슷한 상황 같지만, 저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청화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깊지만, 잘못된 행정, 잘못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청화사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발언한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개최한 오늘의 긴급회의가 더 많은 분들이 선학원 소속 분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 경북제1지회 지회장이자 조계종 종회의원 철우 스님의 '선학원 소속 사찰 비구니스님의 현실' 주제 발제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갈등해법을 위한 제언' 발표도 진행됐다. 두 발제를 통해 참석대중들은 선학원 문제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모색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조계종에 대해서는 선학원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를, 선학원에는 △분원 동의없는 토지 매각 중단 △사고사찰 지정 중단 △분원장 임명시 조계종에 제적원 제출요구 중단 등 3개항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선학원 등에 전달할 호소문도 채택했다. 호소문은 그동안 고착화된 조계종과 선학원간 갈등구도를 넘어, 순수하게 조계종 승적을 가진 선학원 소속 분원 스님들의 고충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국비구니회는 호소문에서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불교정화운동이 촉발되고 비구 · 대처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한국불교 혼란기에, 수많은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했음을 알고 있다"며 "현재 선학원의 모습에 그러한 과거의 믿음은 사라졌고 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보정재를 매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원은 사고사찰로 지정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현 상황에 대해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선학원과 조계종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선학원을 선택하면 정체성에 다름없는 조계종 승적을 잃고, 조계종을 선택하면 선학원에 등록된 사찰을 잃게 되는 이해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조계종과 선학원이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서로의 명분과 이익만을 계산하는 동안, 수많은 스님들의 불안과 냉담은 점점 더 크기를 키워 마침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결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늦은 후회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내자"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백만원력 결집불사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일시 | 불기2566(2022)년 8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 광제사(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모롱지로 94)
문의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23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의 미래, 세종 광제사의
공덕주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불사 및 기도동참
부처님 조성 불사 | 복장불사 | 천일기도 | 기념식수

후원계좌 농협 301-0294-9457-7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044-850-3190

